

##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요인 구조: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와의 관련성 검증\*

심상홍    이장한\*\*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에 성격의 병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가 두 가지 유형의 자기에(과시적인 성향의 외현적 자기에 및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성향의 내현적 자기에)의 비적응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621명(남 263명, 여 358명)을 대상으로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 자기에적 성격검사(외현적 자기에 측정), 그리고 과민성 자기에 척도(내현적 자기에 측정)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세 하위요인 중, 권위성 요인은 자기에적 성격검사의 하위요인들(권위욕구/특권의식, 우월함에 대한 욕구,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그 외 두 하위요인(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 자기중심성)은 과민성 자기에 척도의 하위요인들(평가에민성, 자기몰입)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의 각 하위요인이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에 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특히 각 유형의 비적응적 특성이라고 알려진 각 요인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와 함께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가 반영하는 병리적 자기에의 특성, 그리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자기에 성격, 외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병리적 요인

오늘날처럼 자기가치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자기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을 유지시키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교적 긍정적인 성격특성으로서, 빠르게 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Lasch, 1976). 이렇듯 정상적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에와는 달리, 병리적 성격특성으로서의 자기에 성격장애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편람 제 3판(Diagnosis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DSM-III;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에서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과도한 자기에 대한 몰두, 비현실적인 웅대한 자기상, 타인에 대한 공감 결여에 따른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그 관심에 따라 다양한 자기보고식 검사들이 개발 및 연구되어 왔으며(Pincus & Lukowitsky, 2010), 국내에서도 황순택(1995)이 DSM-III-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진단준거를 바탕으로 전형성 평정에 의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검사인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이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03012).

\*\* 교신저자 : 이장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Fax: 02) 816-5124, E-mail : clipsy@cau.ac.kr

NPDS)를 사용해 왔다(예, 한수정, 1999; 박세란, 2004; 한수정, 권석만, 2010).

이와는 달리, 국외에서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개발한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NPI)가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비록 NPI가 NPDS처럼 DSM-III의 자기에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근거로 만들어졌지만, 비교적 적응적인 형태의 자기애를 반영함에 따라 병리적인 형태의 자기애를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Carroll, Hoernigmann-Stoval, & Whitehead, 1996; Rhodewalt & Morf, 1995; Watson, Trumpeyter, O'Leary, Morris, & Culhane, 2005-2006). 한 예로, Miller 등(2009)은 대학생 집단 및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NPI 점수와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임상 집단의 NPI 점수가 대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다른 연구들(Brown, Budzek, & Tamborski, 2009; Rhodewalt & Morf, 1995, Watson, Little, Sawrie, & Biderman, 1992)에서도 NPI 점수가 여러 비적응적인 양상(예, 신경증, 우울)과는 오히려 부적인 상관을, 적응적인 양상(예, 성취동기, 자존감)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NPI가 비교적 적응적 자기애를 반영하는 반면, NPDS는 비적응적 양상의 자기에 성격장애를 반영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들에서 제안해 왔다. 구체적으로, NPDS 및 NPI 각 척도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NPDS가 높을수록 자존감 점수가 조금 높거나 관련성이 없고 자기평가에 좀 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 높은 반면, NPI가 높을수록 자존감 점수는 더 높고 자기에 대해 더 만족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우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수정, 1999). 이런 결과는 비교적 건강한 측면의 자기애를 반영하는 것이 NPI인 반면, NPDS는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병리적인 형태의 자기애를 반영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NPDS와 NPI가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결과(한수정, 1999)는, NPI가 자기에의 병리적 측면 일부를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NPI를 요인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7개의 하위요인('권위', '과시성', '우월성', '허영심', '착취성', '특권의식', '자기-충족')이 추출

된 경우, 그 중 '과시성', '착취성', 그리고 '특권의식'은 부적응적인 양상을 지니고 있으며(Raskin & Novacek, 1989), 4개의 하위요인('리더십/권위성', '자기-몰입/자기칭찬', '우월성/거만', '착취성/특권의식')이 추출된 경우(Emmons, 1984, 1987), '착취성/특권의식' 요인점수가 높으면 실제 자기와 이상화된 자기의 불일치가 더 크고(Rhodewalt & Morf, 1995), 낮은 자기-존중감을 보이며(Brown et al., 2009), 공감 수준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Watson, Grisham, Trotter, & Biderman, 1984; Watson et al., 1992; Watson & Morris, 1991). 이런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착취성/특권의식' 요인이 다른 3개의 요인들보다 더 병리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NPI에 대한 국내 요인분석 연구(정남운, 2001b)에서도 4개의 하위요인('리더십/자신감', '권력욕구/특권의식', '과시/칭찬욕구', '우월의식')이 추출되었는데, 이 중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이 다른 요인과는 달리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3개 요인을 통제된 뒤에는 신경증적 경향성과 더 높은 상관을, 자존감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는 NPI 척도의 일부 요인이 부적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PDS의 일부 병리적인 부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비록 같은 이름의 자기애라고 표현되지만 자기애가 적응적 또는 비적응적으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리적 측면의 자기에 성격장애를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애로 나눌 수 있음을 여러 이론가들은 제안해 왔다(정남운, 2001a; 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Kohut, 1971). 외현적 자기애자는 DSM에서 말하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을 과장되게 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거만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내현적 자기애자는 자기 중심성이 높고 자기에 대한 환상을 과장한다는 것은 외현적 자기애와 공통적이지만, 겉으로는 자기 확신과 주도권이 부족하고 자기-존중감이 낮으며 타인으로부터 자기상에 대한 상처를 받기 쉽다.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철수하며, 우울, 불안해하고 소심하고 수줍어한다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NPDS는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를 선별하기 위한 NPI(Akhtar & Thomson, 1982; Pincus & Lukowsky, 2010; Wink, 1991, 1992)와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를 선별하기 위한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이하 HSNS, Hendin & Cheek, 1997)와의 관련성 역시 보고되어 왔다. 예를 들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집단을 선별할 때, NPDS의 내현적 자기에 특성을 반영하는 일부 문항을 사용(박세란, 2004)했을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NPDS에서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척도를 제작(강선희, 정남운, 2002)하기도 하였다. 이는 NPDS가 외현적 자기에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에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NPDS가 NPI보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강선희, 정남운, 2002)와 더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박세란, 2004)는 NPDS가 자기에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내현적 자기에에는 외현적 자기에보다 주관적인 심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다.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존감이 높고 우울감 및 불안감이 낮은 반면(Brown et al., 2009; Rhodewalt & Morf, 1995), 내현적 자기에에는 자존감이 낮고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기상에 대한 상처를 받기 쉬우며, 사회적 철수를 보이며, 우울, 불안해하며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인다(정남운, 2001a; 강선희, 정남운, 2002; Akhtar & Thomson, 1982; Kernberg, 1975; Kohut, 1971; Wink, 1991, 1992). 이런 주장과 함께 선행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NPI의 일부 요인만이 병리적 자기에와 관련이 있는 반면, 내현적 자기에를 선별하기 위한 HSNS는 2개의 하위요인('평가에민성', '자기몰입') 모두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정남운, 2001a)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외현적 자기에보다 내현적 자기에가 더 병리적이라면, 병리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NPDS가 외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NPI보다 내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HSNS와 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NPDS는 개인 내적인 고통감 뿐만 아니라 대인간의 관계에 저해를 초래하는 병리적인 양상의 자기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성격 모두를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NPDS가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비적응적인 자기에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에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한 주요 검사도구인 NPDS와 외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NPI, 그리고 내현적 자기에를 측정하는 HSNS를 사용하여, NPDS가 다른 유형의 자기에를 측정하는 척도들과 어떤 관련을 보이는지, 그리고 각 유형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NPDS는 비교적 건강한 자기에를 반영하는 NPI보다 비적응적인 자기에를 반영하는 HSNS와 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 NPDS는 NPI 하위요인 중 병리적 양상을 반영하는 하위요인(예, 과시성, 착취성, 권력욕구/특권의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셋째, NPDS는 HSNS 하위요인과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의 자기에라고 표현되지만,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특성이 다르므로, 이전 연구결과들(정남운, 2001a; Cain, Pincus, & Ansell, 2008; Hendin & Cheek, 1997)과 마찬가지로 이들 간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관련성이 없을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참가자는 서울 C 대학교에서 설문지를 작성한 658명의 대학생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37명을 제외한 총 621명(남 263명, 여 358명)의 대학생들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0세( $SD=2.3$ )로 범위는 17에서 30까지였으며, 남자의 평균연령 21.8세( $SD=2.8$ ), 여자의 평균연령은 20.6세( $SD=1.8$ )였다.

## 연구 도구

###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이 검사는 황순택(1995)이 DSM에 제시된 성격장애를 측정하기 위해 임상가들의 전형성 평정을 바탕으로 확정하여 만든 성격장애 척도 중 자기에 성격장애 문항으로, 모두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범위는 18점에서 126점이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성 성격장애 성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측정을 위해 본래의 4점 척도가 아닌 한수정(1999)이 수정한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황순택(1995)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68이었고, 한수정(1999)의 결과에서는 .88의 내적합치도, 본 연구에서는 .86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 자기애적 성격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이 검사는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에성 성격장애 진단준거를 근거로 만든 총 54 문항을 Raskin과 Terry(1988)가 주성분분석을 거쳐 40문항으로 단축한 것을 한수정(1999)이 번안하였다. 각 문항마다 자기에성 성격을 반영하는 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한 문장으로 총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자가 그 중 하나를 강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에성 성격 성향을 더 많이 지닌 것을 의미한다.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를 .83으로 보고하였고, 한수정(1999)의 연구에서는 .85의 내적합치도, 본 연구에서는 .85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 과민성 자기에 척도(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이 검사는 Hendin과 Cheek(1997)이 Murray의 자기에 척도(Murray's Narcism Scale, 20문항)를 바탕으로 MMPI 검사에서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는 척도들과 상관이 높은 10개 문항(Wink, 1991)을 선정하여 만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남운(2001a)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

고, 점수범위는 10점부터 50점이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Hendin과 Cheek(1997)이 보고한 내적합치도는 표본에 따라 .62~.76의 범위였고, 정남운(2001a)의 연구 결과에서는 내적합치도를 저해하는 1번 문항을 제외시켰을 때 전체표본의 내적합치도는 .70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5의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 분석 방법

먼저, NPDS, NPI, 그리고 HSNS, 이 세 척도 자료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NPDS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NPI, HSNS 척도 각각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NPDS가 반영하는 자기에 특성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의 어느 부분을 반영하는지, 반영하는 내용이 실제로 자기에의 병리적 특성을 반영하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 결 과

척도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확인하고자 각 척도의 문항-총점 상관을 확인하였다. NPDS에 대한 문항-총점 상관분석 결과, 전반적인 문항-총점 상관은 최저 .42 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NPI가 이분변인인 관계로 이 연상관(biserial correlation) 계수를 구한 결과, 교정된 상관계수가 .20 이하인 세 문항(14번, 22번, 24번)을 제거하고 3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HSNS에 대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전반적인 문항-총점 상관은 최저 .29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는, NPDS는 65.57( $SD=14.45$ ), NPI는 16.26( $SD=6.97$ ), 그리고 HSNS는 27.47( $SD=5.46$ )이었다.

각 척도들의 하위요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척도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NPDS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한수정, 1999)와 같이 최대우도법을 통해 3개 요인을 지정하고, 각 요인의 상관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Promax(Kappa=4) 방식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은 각 요인에 대해 .40 이상의 양호한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스크리 도표(scree plot)를 통해 고유치가 1이상인 3개 요인을 추출한 것은 한수정(1999)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나, 각 요인별 문항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다시 한 번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 요인 수는 3개로 동일하되 다른 문항들로 묶인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요인 1은 남들보다 뛰어나고 권력을 갖고 싶으며, 자신을 높이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이를 '권위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낄 때 기분이 나쁘거나 화를 참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항으로 이를 '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이라 명명하고, 요인 3은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며 타인에 대한 공감결여에 대한 내용의 문항으로 이를 '자기중심성'이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NPDS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64~.80 범위에 있었다. 각 요인과 요인부하량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NPI에 대한 요인분석은 기존 결과처럼, 요인 수가 4개에서 7개까지 다양하였다(정남운, 2001b; 한수정, 1999; Emmons, 1984, 1987; Raskin & Novacek, 1989). 요인을 가능한 많이 추출하는 것이 설명변량을 크게 하고 자기에 특성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제안(정남운, 2001b)과 요인특성에 따라 최대우도법을 통해 6개 요인을 지정하고, Promax(Kappa=4)

방식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의 2개 문항(10, 17번)을 제외하여 총 35개 문항을 재분석하였다. 요인 1은 성공에 대한 확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를 포함하는 '권위욕구/특권의식'이라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내용과 같은 '우월함에 대한 욕구'라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자신의 신체나 매력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고 주목받고 싶은 내용을 포함하는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4는 타인을 조종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내용의 '착취성', 요인 5는 자기주장을 잘하고 리더가 되고자 하며 과감하게 일을 한다는 내용의 '과감성/자기주도성', 마지막으로 요인 6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는 내용의 '인정 및 칭찬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였다.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들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6, 하위척도들의 내적합치도는 .50~.75 범위에 있었다. 각 요인과 요인부하량을 부록 2에 제시하였다.

HSNS에 대한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통해 2개 요인을 지정하여 Promax (Kappa=4) 방식으로 사각회전을 실시한 결과, 선행 연구결과(정남운, 2001b)와 동일한 요인구조를 보였다(요인 1: '평가예민성'; 요인 2: '자기몰입').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들의 내적합치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65, 요인 1은 .65, 요인 2는 .52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내었다. 각 요인과 요인부하량을 부록 3에 제시하였다.

각 척도들의 하위요인을 바탕으로 상관관계를 확인

표 1. NPDS, NPI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

척도	NPI	NPI1	NPI2	NPI3	NPI 4	NPI 5	NPI 6
NPDS	.37***	.29***	.29***	.31***	.20***	.26***	.06
NPDS1	.54***	.42***	.48***	.41***	.32***	.29***	.22***
NPDS2	.12**	.10*	.06	.16***	.01	.13**	-.06
NPDS3	.27***	.20***	.20***	.19***	.19***	.21***	.01

주. NPDS: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 NPI: 자기에적 성격검사;

NPDS1: 권위성; NPDS2: 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 NPDS3: 자기중심성;

NPI1: 권위욕구/특권의식; NPI2: 우월함에 대한 욕구; NPI3: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 NPI4: 착취성; NPI5: 과감성/자기주도성; NPI6: 인정 및 칭찬에 대한 욕구.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NPDS, HSNS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

척도	HSNS	HSNS1	HSNS2
NPDS	.63***	.62***	.40***
NPDS1	.36***	.33***	.25***
NPDS2	.59***	.65***	.27***
NPDS3	.56***	.47***	.42***

주. NPDS: 자기에 성격장애 척도; HSNS: 과민성 자기에 척도;

NPDS1: 권위성; NPDS2: 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 NPDS3: 자기중심성; HSNS1: 평가예민성; HSNS2: 자기몰입

\*\*\*  $p < .001$

표 3. NPI, HSNS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간의 상관계수

척도	NPI	NPI1	NPI2	NPI3	NPI4	NPI5	NPI6
HSNS	.09*	.05	.06	.18***	.03	.08	-.09*
HSNS1	.04	.03	-.05	.21***	-.01	.01	-.07
HSNS2	.11**	.05	.14*	.08*	.06	.12**	-.07

주. NPI: 자기애적 성격검사; HSNS: 과민성 자기에 척도;

NPI 1: 권위욕구/특권의식; NPI 2: 우월함에 대한 욕구; NPI 3: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 NPI 4: 착취성; NPI 5: 과감성/자기주도성; NPI 6: 인정 및 칭찬에 대한 욕구;

HSNS 1: 평가예민성; HSNS 2: 자기몰입

\*  $p < .05$ , \*\*  $p < .01$ , \*\*\*  $p < .001$

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예측대로 NPDS의 전체 점수는 NPI 전체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37, p<.001$ . NPDS 요인 1(‘권위성’)은 다른 두 요인보다 NPI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들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22\sim.48, ps<.001$ . 특히, NPDS 요인 1은 NPI 요인 1(‘권력욕구/특권의식’), NPI 요인 2(‘리더십/자신감’), NPI 요인 3(‘과시’), NPI 요인 4(‘착취성’)와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r=.32\sim.48, ps<.001$ . 이와 달리, NPDS 요인 2, 3은 NPI 일부 하위요인들과는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을 보였다,  $r=.10\sim.20, ps<.05$ .

NPDS 전체 점수와 HSNS 전체 점수 및 하위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표 2), 예측대로 NPDS 전체 점수는 HSNS 전체 점수 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과의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r=.40\sim.63, ps<.001$ . 이 중 특히, NPDS 요인 2(‘자기손상에 대한 적대감’), 요인 3(‘자기중심성’)은 HSNS 전체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r=.56\sim.59, p<.001$ , HSNS 요인 1(‘평가예민성’)과는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r=.47\sim.65, p<.001$ . 이 중 특히, NPDS ‘자기손상에 대한 적대감’ 요인은

HSNS ‘평가예민성’ 요인과의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r=.65, p<.001$ , NPDS ‘자기중심성’ 요인은 HSNS ‘평가예민성’ 요인과의 ‘자기몰입’ 요인 각각과 유의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r=.42\sim.47, ps<.001$ .

마지막으로 HSNS와 NPI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표 3), 선행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HSNS의 전체 점수는 NPI 전체 점수와 유의하지만 매우 낮은 상관을 보였다,  $r=.09, p<.05$ . 또한 HSNS 전체 점수 뿐만 아니라 하위 요인은 NPI 하위 요인과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r=-.09\sim.21$ .

## 논 의

자기에 성격장애는 표면적으로는 웅대한 자기상을 지니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깨지기 쉬운 자기상을 지니고 있음을 기존 문헌들(Kernberg, 1975; Kohut, 1971; Pincus & Lukowitsky, 2010)은 제안해 왔고, 이 두 측면을 포함한 자기에 성격장애를 연구 및 진단하기 위해 국외 여러 연구들에서는 NPI(외현적 자기에

성향 측정)와 HSNS(내현적 자기에 성향 측정) 두 척도를 함께 사용해왔다(Cain et al., 2008). 이는 NPI가 다소 적응적 자기에 성향을 반영하므로(Carroll et al., 1996; Rhodewalt & Morf, 1995) 병리적 자기에를 측정할 때는 HSNS(Hendin & Cheek, 1997)를 함께 사용하여 그 한계점을 보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NPDS를 보다 많이 사용해왔는데, 이는 NPDS가 앞서 언급한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 성격 모두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NPDS가 외현적 자기에와 내현적 자기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만 제시되었을 뿐(예, 박세란, 2004; 한수정, 1999), 실제 두 유형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유형이 지닌 병리적 측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밝혀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PDS가 그 두 유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NPI와 HSNS를 바탕으로 그 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NPDS는 외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NPI 뿐만 아니라, 내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HSNS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주장(박세란, 2004; 한수정, 1999)과 동일하게 두 척도 모두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 모두를 NPDS가 포함하고 있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NPI와 HSNS는 서로 상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연구결과(Cain et al., 2008; Hendin & Cheek, 1997)와 마찬가지로, 비록 자기에라고 명명되지만 그 하위유형에 따라 자기에의 서로 다른 유형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NPDS가 HSNS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결과(NPI:  $r=.37$ , NSNS:  $r=.64$ )는, 본 연구의 가설대로 NPDS가 역기능적인 자기에 성격 특성과 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NPI가 반영하는 자기에에는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자기에를 반영하는(Carroll et al., 1996; Rhodewalt & Morf, 1995; Watson et al., 2005-2006) 반면, HSNS는 자기에의 비적응적 측면(예, 낮은 자존감, 타인의 평가에 대한 높은 수치심, 높은 우울 및 불안감)을 보다 더 반영하기 때문이다.

NPDS의 세 하위요인과 두 척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외현적 자기에의 중요 특성인 권위나 권력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NPDS의 요인 1('권위성')은 NPI 전체 점수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또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대한 취약성을 바탕으로 내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NPDS 나머지 두 요인(요인 2: '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 요인 3: '자기중심성')은 HSNS 전체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NPDS 세 하위요인이 외현적 자기에 및 내현적 자기에를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NPDS의 요인 1이 외현적 자기에를 반영하는 반면, NPDS 요인 2와 3은 내현적 자기에를 더 잘 반영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세부적으로 NPDS와 각 척도의 하위요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NPI 하위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NPDS의 요인 1('권위성')은 NPI 요인 1('권위욕구/특권의식'), 요인 2('우월함에 대한 욕구'), 요인 3('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 그리고 요인 4('착취성')와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이는 NPDS 요인 1이, 과시적이고 권위를 내세우며, 타인과는 다르다는 특권의식과 좀 더 외적인 우월성을 보이려고 하는, 즉 외현적 자기에 성향을 반영하는 특성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들(Emmons, 1984, 1987; Raskin & Novacek, 1989)에서 공통적으로 비적응적이고 병리적인 양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한 NPI 하위요인(즉, 착취성, 권위욕구/특권의식)과 NPDS 요인 1의 높은 상관관계를 통해, NPDS 요인 1이 외현적 자기에 성격의 비적응적인 측면(예, 낮은 자기존중감, 낮은 공감 수준 및 사회적 바람직성, 높은 신경증적 경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남운(2001b)의 연구에서도 '권력욕구/특권의식' 요인이 다른 요인과는 달리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NPDS 1요인은 외현적 자기에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NPDS의 요인 2와 3이 HSNS 요인 1('평가예민성')과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반영하는 핵심 특성이 '평가예민성'이라는 기존 주장(정남운, 2001a; Hendin & Cheek, 1997)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결국 NPDS 요인 2와 요인 3이 내현적 자기에 특성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NPDS 요인 2('자기 손상

에 대한 불쾌감)는 HSNS의 요인 1(‘평가예민성’)과는 높은 상관을 보여, 자기 손상을 못 견디하는 자기에 성격 특성은 타인의 평가에 대해 보다 민감하고 인정 받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PDS 요인 3(‘자기중심성’)이 HSNS 요인 1(‘평가예민성’)과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는, 자기에 성격 성향자들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타인의 평가에 매우 예민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에 성향자들이 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Morf & Rhodewalt, 2001), 결국 주관적 불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NPDS의 요인 3(‘자기중심성’)과 HSNS의 요인 2(‘자기몰입’)의 높은 상관은 기존 연구(정남운, 2001a)에서 HSNS의 ‘자기몰입’ 요인이 정신병적 경향성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를 고려해 볼 때, NPDS의 자기에 대한 몰입 성향은 결국 정신병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는 역기능적인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NPDS는, 각 세부 요인에 따라 자기에 성격장애의 중요 진단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NPDS의 요인 1은 웅대한 자기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NPI의 하위 요인, 즉 ‘권위욕구/특권의식’,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NPDS 요인 1과 요인 2는 칭찬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현적 및 내현적 자기에의 중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NPDS 요인 1은 NPI의 하위 요인, ‘인정 및 칭찬에 대한 욕구’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NPDS 요인 2는 HSNS의 ‘평가예민성’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타인에 대한 감정 결여와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NPDS ‘자기중심성’ 요인은 HSNS의 ‘자기몰입’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NPDS는 자기에 성격장애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서 자기에의 하위 유형인 내·외현적 자기에 모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위요인에 따라 각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NPDS의 요인수가 선행연구(한수정, 1999)와 마찬가지로

로 3요인이 도출되었으나,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런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와의 시간적 및 사회적 배경의 차이 및 다수의 자료수집에 의한 것으로 부분적인 설명은 가능하나,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록 본 연구가 자기에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들을 통해 NPDS 하위요인이 지닌 비적응적 측면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병리적 증상을 측정하는 여러 척도들(예, 우울척도, 불안척도, 자존감척도 등)을 통해 NPDS 하위요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앞선 연구들에서는 NPDS 세 하위 요인 중, 요인 1(‘권위성’)이 외현적 자기에에서의 비적응적인 대인관계 양상(예, 낮은 사회적 바람직성과 타인에 대한 낮은 공감)과, 그리고 요인 2(‘자기 손상에 대한 불쾌감’)와 요인 3(‘자기중심성’)은 내현적 자기에의 심리적인 주관적 불편감(예, 높은 우울감과 불안감, 높은 정신병적 경향성)과 높은 관련을 보일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 좀 더 직접적인 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해당 제안을 밝혀내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이러한 관련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측정해 NPDS 하위 요인이 갖고 있는 여러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은, 결국 NPDS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끔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NPDS 척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자기에 성격장애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선희,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0-990.
- 박세란 (2004).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귀인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남운 (2001a). 과민성 자기에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남운 (2001b). 자기에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 자: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한수정 (1999). 자기에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수정, 권석만 (2010). 자기에자의 자기관련 정보에 대한 지각적 민감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135-1143.
- 황순택 (1995). 전형성 평정에 의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 개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 12-2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revised)*. Washington DC: Author.
- Brown, R. P., Budzek, K., & Tamborski, M. (2009). On the meaning and measure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951-964.
- Cain, N. M., Pincus, A. L., & Ansell, E. B. (2008). Narcissism at the crossroads: Phenotypic description of pathological narcissism across clinical theory, social/personality psychology, and psychiatric diagno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638-656.
- Carroll, L., Hoernigmann-Stoval, N., & Whitehead, G. I. (1996).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narcissism. *Psychological Reports*, 79, 1267-1272.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 291-299.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Hendin, H. M., & Cheek, J. M. (1997). Assessing hypersensitive narcissism: A reexamination of Murray's Narcism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588-599.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self*.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sch, C. L. (1976).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Norton.
- Miller, J. D., Gaughan, E. T., Pryor, L. R., & Kamen, C. (2009). The consequences of depressive affect on functioning in relation to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424-429.
- Morf,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Pincus, A. L., & Lukowitsky, M. R. (2010). Pathological narcissism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421-446.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0, 590.
- Raskin, R. N.,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Raskin, R. N.,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 66-80.
- Raskin, R. N.,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hodewalt, F., & Morf, C. C. (1995). Self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 review and new

- finding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 1-23.
- Watson, P. J., Grisham, S. O., Trotter, M. V., & Biderman, M. D. (1984). Narcissism and empathy: Validity evidence for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 159-162.
- Watson, P. J., Little, T., Sawrie, S. M., & Biderman, M. D. (1992). Measure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Complexity of relationships with self-esteem and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64, 434-449.
- Watson, P. J., & Morris, R. J. (1991). Narcissism, empathy, and social desirabi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6, 575-579.
- Watson, P. J., Trumpler, N., O'Leary, B. J., Morris, R. J., & Culhane, S. E. (2005-2006). Narcissism and self-esteem in the presence of imagined others: Supportive vs. destructive object representations and the continuum hypothesis.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25, 253-268.
- Wink, P. (1991).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 Wink, P. (1992). Three narcissism scales for the California Q-se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 51-66.

부록 1. NPDS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1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고 높이 평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b>.796</b>	.080	-.087
9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싶다.	<b>.760</b>	.128	-.111
11	마음만 먹으면 나에 대해 남들이 평가하는 정도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b>.699</b>	-.039	.056
1	나는 남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b>.621</b>	-.388	.357
13	다음 중의 한 가지(혹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최고의 성공, 막강한 권력, 최고의 미, 이상적인 사랑, 누구보다도 유명해지는 것	<b>.606</b>	.108	-.123
17	내가 해낸 중요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인정해줘야 한다.	<b>.532</b>	.242	.013
6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거나 거절당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069	<b>.787</b>	-.099
4	누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화가 치밀거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	.183	<b>.748</b>	-.104
14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 화를 참지 못한다.	.168	<b>.635</b>	-.018
5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고 이 경우 화를 내거나 나도 그들에게 모욕을 준다.	-.198	<b>.550</b>	.348
16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는다.	-.162	<b>.520</b>	.307
2	어떤 사람에 대해 때로는 너무나 좋다가 때로는 극도로 미워지는 등 감정이 극단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053	<b>.481</b>	.178
12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행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기분이 나빴던 적이 종종 있다.	.235	<b>.453</b>	.231
3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찮게 생각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다.	-.163	.070	<b>.762</b>
8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039	.014	<b>.624</b>
18	어떤 일에 대해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다.	-.082	.165	<b>.579</b>
10	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326	-.101	<b>.482</b>
7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아 자존심이 상했던 경우가 있다.	.281	.094	<b>.397</b>
	고유치(eigenvalue)	5.337	2.098	1.251
	설명량(%)	29.648	11.638	6.952

주. N=621; 요인1: 권위성; 요인2: 자기손상에 대한 불쾌감; 요인3: 자기중심성

부록 2. NPI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27	나는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b>.788</b>	-.019	-.049	-.003	.058	-.192
33	나는 리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b>.654</b>	-.012	.046	-.030	.162	.016
32	권위를 갖는 것이 나에게서 큰 의미가 없다.	<b>.618</b>	-.001	.118	-.006	.031	-.042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갖는 것을 좋아한다.	<b>.557</b>	-.152	-.004	.162	.219	.051
25	나는 내가 당연히 얻어야 하는 것을 모두 얻을 때까지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b>.539</b>	.063	-.157	.182	-.157	-.183
8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b>.501</b>	.095	-.013	.073	-.307	.189
5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세상은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b>.351</b>	.244	-.201	.093	-.034	.106
34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049	<b>.726</b>	-.093	-.059	.134	-.035
40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076	<b>.665</b>	.031	.033	.098	-.081
9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079	<b>.594</b>	.190	.019	.058	.125
31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다.	-.200	<b>.481</b>	-.003	.268	.110	-.080
18	나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되고 싶다.	.433	<b>.465</b>	.011	-.131	-.241	-.016
37	나는 훗날 누군가가 내 자서전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255	<b>.424</b>	.023	-.195	-.044	.181
39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	-.080	<b>.380</b>	.145	.197	.142	-.282
15	나는 내 몸매(또는 체격)를 과시하기를 좋아한다.	-.093	.030	<b>.721</b>	-.018	-.091	-.097
29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171	-.041	<b>.603</b>	.018	-.065	.165
38	나는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모습에 주목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한다.	.297	-.032	<b>.582</b>	-.002	-.063	-.165
19	나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한다.	-.129	.175	<b>.519</b>	.209	-.295	.061
28	나는 새로운 유행과 스타일을 주도하기를 좋아한다.	.106	.034	<b>.476</b>	-.149	.069	-.036
30	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	.163	.050	<b>.387</b>	.013	.221	.245
20	나는 기회가 되면 나의 자랑거리를 드러내 보이는 경향이 있다.	-.046	-.075	<b>.351</b>	-.061	.343	.188
35	사람들은 때때로 내가 하는 말을 믿는다.	.059	-.019	-.032	<b>.574</b>	-.206	.188
6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016	.010	.062	<b>.517</b>	.102	-.035
16	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읽을 수 있다.	.056	-.083	.207	<b>.505</b>	-.138	-.267
13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301	-.222	.018	<b>.486</b>	-.025	.124
21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093	.175	-.036	<b>.468</b>	-.073	.127
23	누구나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062	.006	-.160	<b>.361</b>	.022	.082
11	나는 자기주장을 잘한다.	.109	.024	-.099	<b>.353</b>	.353	.025
1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107	.123	-.039	<b>.309</b>	.151	.210
2	겸손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020	.039	-.001	-.182	<b>.662</b>	-.061
3	나는 거의 모든 일을 과감하게 하는 편이다.	-.093	.193	-.211	.070	<b>.639</b>	.078
36	나는 타고난 리더이다.	.017	.094	-.040	.331	<b>.361</b>	-.152
7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275	.053	.276	-.048	<b>.339</b>	.054
26	나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063	.012	.000	.012	-.009	<b>.753</b>
4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가 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04	-.069	.019	.170	.019	<b>.697</b>
	고유치(eigenvalue)	6.154	1.907	1.738	1.528	1.353	1.319
	설명량(%)	17.583	5.449	4.967	4.367	3.867	3.770

주. N=621; 요인1: 권위욕구/특권의식; 요인2: 우월함에 대한 욕구; 요인3: 외향적 측면에 대한 과시; 요인4: 착취성; 요인5: 다감성/자기주도성; 요인6: 인정 및 칭찬에 대한 욕구

부록 3. HSNS 요인별 문항과 요인부하량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2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기분이 쉽게 상한다.	<b>.729</b>	-.226
5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싫다.	<b>.651</b>	.053
3	다른 사람들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는 종종 내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이 쓰이고, 남들의 시선이 내게 쏠리는 느낌이 든다.	<b>.650</b>	-.182
7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나에게 대한 비난으로 해석한다.	<b>.562</b>	.260
4	나는 내 일의 공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싫다.	<b>.556</b>	.146
8	나는 종종 내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해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090	<b>.748</b>
9	나는 내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걱정해 줄 여유가 없다.	.089	<b>.654</b>
1	나는 나 개인의 일, 건강, 걱정거리, 인간관계 등을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잊고 오직 그 생각에만 몰두할 수 있다.	-.280	<b>.509</b>
6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교해 기질이 좀 다른 것 같다.	.051	<b>.460</b>
10	나는 다른 사람이 자기 문제로 와서 내 시간을 요구하거나 공감해주기를 요구할 때, 말은 못 해도 괴롭고 귀찮다.	.336	<b>.433</b>
	고유치(eigenvalue)	2.542	1.489
	설명량(%)	25.419	14.891

주. N=621; 요인1: 평가예민성; 요인2: 자기몰입

## Factor Structur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Relationships with Overt/Covert Narcissism and Pathological Factor

Sang Hong Shim    Jang-Ha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that the overt narcissism and the covert narcissism, respectively, are having with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Scale (NPDS). The 621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the NPD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and 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HSNS). According to the results, one factor of the NPDS (authority) was correlated with the NPI, known to be measuring overt narcissism, and the other factors of the NPDS (displeasure toward self-slender, egocentrism) was correlated with the HSNS, known to be measuring covert narcissism.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mplicate that the each factors of the NPDS is segregated from between overt narcissism and covert narcissism. Furthermore, the each factors of the NPDS is highly correlated with pathological factors of the each scales proposed in the previous studies.

*Key words:* narcissistic personality, overt narcissism, covert narcissism, pathological factor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12월 01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2년 03월 19일  
게재 확정일 : 2012년 03월 27일